

#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이과수 대회에 대한 선교신학적 비평

이 현 모  
<선교학·부교수>

엄청난 폭포수 물살 옆 가파른 암석계곡을 맨손으로 기어올라가는 검은 제복의 제수잇 선교사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영화 “미션”에서 인상적으로 각인(刻印)되어진 영상이다. 이 미션 영화로 잘 알려진 이과수 폭포가 있는 브라질의 이과수 시(市)에서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의 선교분과(MC: Missions Commission)에서 주관한 이과수 선교학 대회(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가 1999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되었다. WEF의 선교학 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의 주제는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이후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발전을 재평가해 보자는 시도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21세기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기본 과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 대회에 참여하여서 다양한 복음주의적 관점들과 평가들을

직접 들었는데 본고(本稿)에서는 이 대회(本稿)의 주요 발제 내용에 대하여서 한국선교학자로서의 복음주의적, 선교신학적 비평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내 선교학이 새로운 세기에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평가해 보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대회를 마치고 이과수 선언문(Iguassu Affirmation)이 발표되었지만 이 선언문보다는 대회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세 명의 발제자들에 대한 비평을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이는 좀더 핵심적인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되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대회에서 발표되어진 미간행 논문들에서 직접 인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 대회의 의미와 배경

1999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이면서<sup>1</sup> 동시에 로잔 세계복음화대회가 되어진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20세기는 선교 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이다. 이 변화들은 근본적인 선교신학 사고의 틀을 변화시킬 정도의 근본적 변화이므로 토마스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s)라는 용어를 망설이지 않고 사용할 정도였다.<sup>2</sup> 특히 20세기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비교할 때 더 급격한 선교학적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였다. 60년대와 70년대는 선교신학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70년대와 80년대는 선교와 문화간의 소원(疎遠)했던 관계가 선교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는 시기였다. 90년대는

<sup>1</sup> 실제 20세기의 마지막 해는 2000년인 것이 맞지만, 워낙 2000년을 새 시대로 보는 견해가 많아서 결국 1990년대 초반에 2000년을 21세기로 간주하기로 하는 견해를 따른다.

<sup>2</sup> 이런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데이빗 보쉬의 책이다.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s* (Maryknoll: Orbis Books, 1991), part 2 and 3.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전세계적 부흥에 발맞추어서 앞에서 제시된 선교신학과 선교문화인류학의 발전이 어울려 괄목할 만한 선교전략의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런 격동의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주의 선교학을 회고하고 평가해 본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좀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형성되어진 핵심적 대회가 1974년의 로잔 대회이고 선교와 문화간의 복음주의적 견해가 대표적으로 제시되어진 회의가 1979년의 월로우뱅크 대회이며 선교전략 발전의 출발점이 된 대표적 사건이 1989년의 로잔II 마닐라 대회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세 대회의 기저를 이루어 준 대표적 움직임은 역시 1974년의 로잔 대회와 그 뒤를 이은 로잔 위원회의 활동이다. 이런 면에서 로잔 대회 이후 25년이 되는 해에 로잔 대회 이후의 복음주의 선교학 흐름을 한번 재평가해 본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53개국에서 총 159명이 참석하였다. 분포를 보면 서구(북미주와 유럽)에서 75명, 비서구 지역에서 84명이 참석하여서 비서구 대표가 약간 많은 양상을 보였지만 실상은 상당수 서구출신 선교사들이 서구지역으로 통계상 잡히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지를 따라 등록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서구 선교학자와 선교사들이 더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고 보인다.<sup>3</sup> WEF의 특성상 실행위원들은 비서구 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대회를 중심으로 주도한 사람은 실행총무인 미국의 Bill Taylor 박사였다.

대회장소를 브라질의 이과수로 정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대회 기간 내내 별로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다. WCC측의 대회나 이전 로잔II와 같은 대회는 개최 장소 자체에 상당한 암시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WCC측 선교분과의 20세기 마지막 대회는 브라질의 살마도

<sup>3</sup>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Bulletin No. 5. (Oct. 15, 1999), 1.

르에서 열렸는데 살바도르는 노예무역 항구로 오랫동안 악명을 높였던 지역이었다. 이 대회는 이를 통해서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용서의 상징적 장소로 이곳을 택하여서 서구신학의 제국주의적 입장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sup>4</sup> 로잔II 대회가 열린 필리핀의 마닐라는 빈곤, 부정의, 분쟁, 독재정치 등 제3세계의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고 이를 통해서 로잔II 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관심사를 보여주려고 의도하였었다. 이런 전례를 기억하면서 이과수에서의 회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시도한 것인지 관심이 있었지만 의외로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회의중 영화 미션을 함께 감상하고 브라질 학자인 발디르 스투어나겔(Valdir Steuernagel)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방신학적 관점인 의로운 폭력의 정당성을 보이려고 시도한 것이나 영화에 나타난 서구 침략자들(conquistadores)의 관점과 과라니 인디언들의 관점의 차이를 조명하려고 시도한 것이 어떤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만들려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sup>5</sup>

## 사무엘 에스코바르의 복음주의 선교학에 대한 비평

이과수 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발제는 지난 25년간의 복음주의 선교학 전개를 돌아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필자에게는 발제자로 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선교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르(Samuel Escobar) 박사가 선정되어진 것은 의외였다. 에스코바르는 르네 파딜라, 올란도 코스타스 등과 같은 ‘광의의 복음 운동’(larger gospel

<sup>4</sup> 이현모, “살바도르 회의에 대한 신학적 반성,” 『복음과 실천』, Vol. 24(1999 가을호), 92-93.

<sup>5</sup> Audiotape, “Missiological Implications, Then and Now, of the Film ‘The Mission.’”

movement)에 속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광의의 복음 운동’은 복음주의의 노선을 따라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명 ‘복음주의적 해방신학 운동’이라고 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다. 물론 복음주의의 약점은 학자마다 자신의 신학적 노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누구를 평가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노선적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스코바르는 오히려 이런 복음주의의 근본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학자이므로 좀더 독립적인 학자를 찾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지적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에스코바르의 한계는 그의 발제에서 잘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 대회에 에스코바르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고 그의 논문만 대독(代讀)되어졌다. 그가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견해에 대한 설득력을 일부 떨어뜨린 요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에스코바르는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세기말에서 본 지구적 상황’(Global Scenario at the Conclusion of a Century)과 ‘주요한 역사적 시점에서의 복음주의 선교학’(Evangelical Missiology at a Critical Historical Moment)이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주로 20세말의 시점에서 본 다양한 복음주의 선교의 변화 이슈들을 역사적, 상황적(contextual), 사회학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분야에서 살펴보았다.<sup>6</sup> 서구 주도형이었던 선교학이 오늘날 여러 면에서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잘 제시하였고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발표였다.

‘핵심적인 발제는 두 번째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1974년 로잔 대회와 이어서 개최된 다양한 회의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전세계적 차원의 ‘행동신학’(doing theology)이라는 과제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행동신학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들은 로잔 운동을 근본

<sup>6</sup> Samuel Escobar, “Global Scenario at the Conclusion of a Century”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1, 1999).

주의적 프로그램으로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았다. 198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로잔II는 로잔I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실천되어진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로잔II에 대하여 경계의 표현을 하였었는데 에스코바르는 이를 북미학회의 틀 안에서 형성되어진 신학적, 선교학적 꾸러미를 제국주의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과 냉전시대 스타일의 선교로 역행시키려는 시도라고 혹평을 서슴지 않았다.<sup>7</sup>

이어서 그는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학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post imperial missiology)과 ‘경영적 선교학’(managerial missiology), ‘소외된 자들의 비판적 선교학’(a critical missiology from the periphery) 등이다.

###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

에스코바르가 지적하는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이란 영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어진 것으로서 제국주의적 개념이 인정되어지던 시기에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형성되어진 선교학에 대한 반발 형태의 선교학 흐름이다. 기독교의 중심점이 2/3세계로 이동함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관점과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선교학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략 세 가지 조류로 이 선교학은 발전하였다고 한다. 첫째는 현재의 선교활동들을 성경적 유형에 따라서 재교정하고 조명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들이었다. 존 스토틀가 이런 분야의 개척자로 인정되어지고 마이클 그린 등이 대표적인 학자로 지적되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나 데렉 티드볼 등을 이 부류에 넣으면서 이들의 주요 관심이 성경에 나타난 윤리적 가르침과 사회적 실천의 영역이라고 지적한다.<sup>8</sup>

<sup>7</sup> Samuel Escobar. “vangelical Missiology: Peering into the Future from a Critical Historical Moment”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2, 1999), 5. 6.

두 번째는 서구 제국주의 활동의 다의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서 선교 역사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해 보는 작업이었다. 막스 워렌, 스티브 니일, 그리고 로저 멜(Roger Mehl) 등이 최근 이런 면에 복음주의적 공헌을 한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이들의 작업은 선교사역의 개념과 실천이 선교사들의 출신 사회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피선교지의 학자들로 하여금 상황화 작업을 가능토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세 번째는 서구교회들이 제삼세계 교회들과 창의적 동반자 관계에 들어가면서 모든 교회들의 과제로서 선교의 미래를 연구하는 유형이었다. 앤드류 월스가 교회의 중심점이 비서구로 이동함에 따른 변화가 선교학에 주는 중요성을 이미 언급하였었다.<sup>10</sup> 마우리스 싱클레어나 마이클 나치르 알리 등이 이런 분야의 연구를 제시한 사람들이다.<sup>11</sup> 이런 유형의 선교학에서는 제삼세계 교회들이 선교의 근원이고 선교기관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 주고 있다.<sup>12</sup>

로잔 대회 이후로 이런 유형의 선교학이 수면에 부상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로잔 대회를 주도한 존 스토틀트는 자신이 선교의 정의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추가하게 된 것은 에큐메니칼 선교학의 도전에 의해서나 선교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상위 임명령에 대한 성경 해석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그러

<sup>8</sup> Ibid., 7. 참조,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72)와 Derek Tidball,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the New Testament* (Exeter: Paternoster, 1983).

<sup>9</sup> Ibid.

<sup>10</sup> Andrew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Orbis Books, 1996).

<sup>11</sup> Maurice Sinclair, *Ripening Harvest, Gathering Storm* (London: MARC, 1988) 과 Michael Nazir Ali,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A World View of Christian Mission* (London: Collins, 1991).

<sup>12</sup> Escobar, "Evangelical Missiology," 7.

<sup>13</sup> John Stott, 「현대기독교선교」(서울: 성광문화사, 1981), 25-29.

므로 존 스토틀의 주장을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선교학의 관심이 탈제국주의, 혹은 탈서구 선교학의 영향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인용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서구학자라는 것은 아직 이 선교학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면에서 에스코바르는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이 ‘신학적 지방주의’(theological provincialism)에서 벗어나는 시도라고 지적하였다.<sup>14</sup> 그러나 후기 제국주의적 선교학은 상황화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의미의 지방주의를 형성하게 되는 염려를 낳게 된다. 적절한 수준의 상황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학 작업이지만 에큐메니칼 그룹에서 보았듯이 지나친 상황화는 선교신학간의 대화가 어려운 새로운 지방주의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서구에서의 탈피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새로운 지방주의를 형성하는 곳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서구의 관점에 매이지 않은 ‘범세계적 선교학’(global missiology)의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에스코바르가 이 유형의 선교학을 ‘범세계적 선교학’으로 결론을 지었다면 좀더 적절한 방향제시가 되었을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 경영적 선교학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이 ‘경영적 선교학’에 대한 에스코바르의 평가였다. 이는 풀러 신학교의 교회성장학과와 ‘기독교 21세기 운동’(AD 2000 Movement)을 중심으로 발전된 선교학을 지칭하는 것인데 “기독교 선교를 경영 가능한 기업활동으로 축소시키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sup>15</sup>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적 개념으로 선교의 과제와 현황을 표현함으로써 선교의 긴급성과 이 과제가 성취 가능성을 보여준

<sup>14</sup> Escobar, 5. 이곳에서 에스코바르는 ‘지방주의’를 ‘신학적 제국주의’(theological imperialism)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sup>15</sup> Ibid., 8.

면에는 공로가 있지만 이는 시장 경제 원리를 지나치게 도입하여서 선교를 마치 경영 활동처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종족 그룹,” “미전도 종족,” “10/40 창,” “종족입양,” “지역귀신론” 등 이런 개념들이 모두 경영적 개념의 수치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에스코바르는 이를 ‘시대정신에의 굴복’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제로 이런 선교학이 선교의 포괄적인 면을 간과하고 오히려 시장 경제 개념을 도입하여서 수치로서 모든 결과를 평가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오래 된 것이었다. 또한 내용이 적합한 가보다는 방법에 치중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었다. 에스코바르는 이런 접근이 축소주의형의 선교학(reductionalist missiology)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맥가브란이 선교란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결국 선교의 총체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6</sup>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의 기능주의적 사회과학이 이 경영적 선교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의 역동성을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7</sup>

플러의 교회성장학을 중심으로 한 선교학에 대해서 위에 언급된 논란들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필자의 일반적 평가는 에스코바르의 톤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강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에스코바르는 이 유형의 선교학을 사회과학과 선교신학의 혼합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면에서는 20세기 들어서 선교학의 영역에서 가장 커다란 진보를 가져온 부분이기도 하다. 선교라는 사역이 실제 프락시스(praxis)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의 영역으로서 이 프락시스를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회과학의 차용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경우 혼합주의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 교회성장학과를 중

<sup>16</sup> Ibid., 9.

<sup>17</sup> Ibid., 10.

심으로 한 선교학은 이런 혼합주의 영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sup>18</sup> 오히려 에스코바르는 선교학을 사회과학을 받아들인 선교학과 받아들이지 않은 선교학으로 단순히 이분화하여서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축소주의적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sup>19</sup>

에스코바르가 이 평가에서 자신의 신학적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스코바르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올란도 코스타스, 르테 파딜라와 함께 “광의의 복음”(larger gospel)을 주장하는 신학 성향을 보이는 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전파를 선교의 주요과제로 삼으려는 복음주의적 시도를 편협한 접근이라고 보는 견해를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학과는 실제 로잔 대회 이후로 복음주의 노선에서 선교정의에 보수적인 견해를 대표해 온 그룹이었다. 특히 60년대 선교라는 정의가 인간화 내지는 구조적 악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관심으로 선회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하여온 그룹이었다. 이런 면에서 에스코바르가 맥가브란의 언급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벗어나지 않은 편협한 접근으로 볼 수도 있다. 로잔의 주류를 흐르는 견해는 선교의 정의를 60년대 보다 좀더 넓게 정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전파의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는 노선인데 에스코바르의 견해가 오히려 복음주의의 주류에서 약간 편향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사회에 대한 기능주의 이해가 복음의 역동성을 부족하게 한다는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동의한다. 필자 자신도 다른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금의 기능주의 혹은 구조주의적 문화 이해가 복음주의 진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고 이런 주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문

<sup>18</sup> 물론 현재의 “영적 전쟁” 개념 중에는 일부 혼합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up>19</sup> David Tae Woong Lee, “Towards an Evaluation of Evangelical Missiology,”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to the WEF, January 31, 2000), 6.

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여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에큐메니칼 그룹의 ‘갈등이론’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면이 있지만 역시 결정적 약점은 복음의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잘못되면 선교를 타문화권에서 단순한 기능적 대체를 형성해 가는 것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sup>20</sup>

### 소외된 자들의 비판적 선교학

에스코바르는 이 선교학을 이전 피선교지였던 곳에서 발전되어진 새로운 선교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선교학의 주요 관심사는 선교적 활동이 얼마나 많이 요구되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선교적 활동이 필요하냐 라는 것이다.<sup>21</sup> 이 선교학 유형의 모델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올란도 코스타스와 르네 파딜라로 대표 지어지는 ‘총체적 선교’(wholistic missions)이다. 코스타스의 접근방법은 해방신학에서 얻어진 일부 통찰들과 교회성장학의 방법론에서 얻은 통찰들을 혼합시키는 것이었다.<sup>22</sup>

총체적 선교란 주로 선교와 사회적 변화간의 관계를 중요한 선교학의 축으로 보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이것을 복음주의적, 목회적 활동에서 선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크와메 베디아코, 데이빗 기타리라든지 아시아의 비나이 사무엘, 데이빗 림 등이 이런 유형의 선교학자로 언급되어졌다.<sup>23</sup> 에스코바르는 이 유형의 선교학이 제2/3세계에서 유래되어져서 다가오는 21세

<sup>20</sup> 이현모, “선교문화인류학의 현 동향과 패러다임 분석”(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발표 논문, 2000년 2월 15일), 6-10.

<sup>21</sup> Escobar, 11.

<sup>22</sup> 이런 모델의 대표적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Orlando Costas, *Liberating News* (Grand Rapids: Eerdmans, 1989)와 “A Wholistic Concept of Church Growth,” in *Exploring Church Growth* ed. by Wilbert Shenk (Grand Rapids: Eerdmans, 1983): 95-107.

<sup>23</sup> Escobar, 12.

기의 선교전략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선교학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부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점차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현실적인 사람들의 상황에서 출발하고 총체적 접근이 서구보다 비서구에서 절실하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면은 균형의 문제이다. 로잔 대회는 처음부터 이런 총체적 접근을 인정하여 왔는데 균형에서 복음전파가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 순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코스타스와 같은 유형의 선교학에서는 그 균형이 로잔의 주장과는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굳이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의 큰 복음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차 사회적 책임이 그 중요성을 더 얻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트리니티 신학교 선교학 교수들이 조심스럽게 경고한 일이다.<sup>24</sup>

## 크리스 라이트의 다원주의 발제에 대한 비평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는 영국에 위치한 선교 분야의 명문교인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구약학자이다. 그는 21세기 복음주의 선교학이 당면하지 않을 수 없는 신학적 과제로서 다원주의를 지적하면서 이 다원주의에 대한 비평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통상적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지는 않겠다. 발제에서 라이트는 세 가지 종류의 다원주의를 비평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해석학적 다원주의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다원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sup>24</sup> David J. Hesselgrave, "Holes in 'Holistic Mission'," *Trinity World Forum* 15:3 (Spring 1990): 1-5, Robert E. Coleman, "Lausanne II and Missions Today and Tomorrow A Forum," *Trinity World Forum* 15: 2 (Winter 1990): 4, and Michael Eastman et al, "Some Impressions of Lausanne II," *Urban Mission &*: 3 (January 1990): 9.

윤리적 다원주의를 제시하였다.

현대주의로부터 탈현대주의로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다양한 다원주의가 필연적으로 복음주의적 선교신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중 성서해석학의 영역에 미친 다원주의 영향을 라이트는 가장 먼저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학적 논제(論題)들은 본질적으로 해석학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이라는 말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교신학을 수립한다고 하여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계몽주의적 현대주의는 성경해석학을 은연중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한하는 ‘현대 과학주의적 주석’(modern scientific exegesis)의 형태와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국한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확신을 거부하는 탈현대주의는 성경의 비판적 해석학에 도전하고 있다.<sup>25</sup>

이런 상황에서 해석학은 단순한 객관성을 추구하던 일원적 방법론에서 다원적 방법론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최근의 해석학자들은 본문 ‘의미’의 참된 근원이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은 1) 저자, 2) 본문 자체, 3) 독자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근원은 실제로 현재의 문화와 종교의 다원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저자 중심적 해석학(author centred hermeneutics)은 복음주의자들이나 좀더 비판적인 해석자 모두에게 일반적 접근방법인데 이는 본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성경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저자가 실제 말하려던 것이 무엇인가와 그 단어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도이다, 결국 문법적 역사적 해석방법으로 귀결되게 된다. 성경 기록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본문 중심적 해석학(text centred hermeneutics)은 성경을 회화(繪畵) 작품

<sup>25</sup> Chris Wright, “Christ and the Mosaic of Pluralisms Challenges to Evangelical Missiology in the 21st Century”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ober 11, 1999), 5.

이나 음악, 조각품과 같은 인공적 공예품으로 간주하여서 누가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본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저자의 참된 의도를 완전히 알아내는 것은 이천년 이상의 시공이 지난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이므로 본문 그 자체가 실존이고 그 자체가 의미라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다양한 문학적 분석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서사나 시적 형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하게 된다. 때로 이 접근법은 성경본문에서 여러 층의 의미를 도출해 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중심적 해석학(reader centred hermeneutics)은 적극적인 성경 해석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장 최근에 제시된 접근법이다. 라이트는 저자 중심의 접근법을 ‘창문’으로 보고 본문 중심 접근법을 ‘그림’으로 보면서 이 독자 중심의 접근법은 ‘거울’의 기능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6</sup> 거울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 달려 있다. 즉 본문의 의미는 독자의 행위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현대주의적 패러다임에서 탈현대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대주의 하에서 독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과학자와 같은 객관성만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탈현대주의적 접근에서는 주관적 관찰자 자신도 현실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황화신학’의 근거가 되는 접근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접근법은 지금까지 해석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서구 주도를 축소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빈곤과 갈등, 부정의 등의 현실에 고통받는 비서구적 상황에서 성경 본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억제하던 굴레를 벗기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다. 선교신학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신학이라든지 이슬람권에 대한 과감한 상황신학적 접근 등에 타당성을 가져다주는 해석학적 접근 방안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선교학은 피할 수 없는 다원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sup>26</sup> Ibid., 12.

에 복음주의 선교학은 성경 교리의 표현이라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법에 대한 라이트의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음주의는 자신들의 신학이 ‘성경적’이라는 절대적 확신에 차있는데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한 해석학적 기반의 확립이라고 보인다. 실제 복음주의 선교학은 자신들의 주장이 성경적인지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아야 하며 라이트의 지적은 적절한 도전이라고 평가되어진다.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해서 라이트의 발제는 실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이미 복음주의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정해 놓았고 이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 선으로 간주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1997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예수의 유일성』(*The Uniqueness of Jesus*)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는 유일주의라는 복음주의 노선을 대변하는 것이었다.<sup>27</sup> 그러나 라이트가 언급한 다원주의의 위험성은 적절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다원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게 될 것이며 예수의 존재와 의미를 우주적 그리스도 개념 하에서 축소시키거나 희석시키게 될 것이고 상대적 존재로 만들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우상숭배의 형태로 오도하게 될 것이다.<sup>28</sup> 이는 복음주의 선교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이다.

세 번째 다원주의의 형태는 선교학이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난해한 질문이었다. 윤리적 다원주의에 대한 대처였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요구되어지는 많은 기독교적 윤리라는 것이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미국 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인간 평등의 정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이상 등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가치들은 극도로 다른 종교와 문화에서 자주 도전을 받아왔지만 선교지에서 이런 가치들은 우

<sup>27</sup> Chris Wright, *The Uniqueness of Jesus* (Crowborough, England: Monarch Publications, 1997).

<sup>28</sup> Chris Wright, “Christ and the Mosaic of Pluralisms,” 18 23.

주적 가치로 일방적으로 요구되어져 왔다.<sup>29</sup> 이런 가치관을 주장하면서도 복음주의는 동일한 악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빈곤, 부정의, 환경 위기 등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선교문화인류학의 발전으로 선교신학은 문화 개념을 신학에 도입하게 되었다. 문화의 개념이 도입되자 그 동안 무의식 중 진리처럼 인식되던 일부 신학적 견해들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회심의 과정과 같은 것도 맥가브란에 의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sup>30</sup>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다원주의는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다. 탈현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된 21세기에 고전적 서구의 인권선언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윤리의 이해를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좀더 치밀한 성경적 윤리학의 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이트의 다원주의에 대한 발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성경적 선교신학의 재정립이 절실함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라이트의 발제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 폴 히버트의 영적 전쟁과 세계관 발제에 대한 비평

최근 들어서 복음을 하나님과 사단간의 영적 전쟁에서의 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관심을 끌고 있다.<sup>31</sup> 이는 이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복음

<sup>29</sup> Ibid., 24.

<sup>30</sup> 맥가브란은 서구의 개인적 회심의 개념은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유효하고 집단 의사결정이 유효한 문화에서는 오히려 개인적 회심보다는 다중개인적 회심(multi individual conversion)이 문화적으로 적합한 회심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단순한 진리로만 제시하고 악한 영의 존재와 같은 것은 단지 인간의 연약함 정도로 간과하던 성향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다. 실제 선교사 경력을 가진 많은 선교학자들은 복음이 단순한 진리만이 아니라 능력임을 지지하며 영적 실체에 대한 도전과 반응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이런 주장은 목회적, 경험적 차원에서의 주장이었지 신학적 반성의 면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신학자들은 오히려 경험적 목회적 차원이 취약한 견해를 영적 전쟁의 영역에 제시하곤 하였다. 결국 영적 전쟁 지지자들은 반대자들의 주장을 경험이 없는 자들의 무지로 간주해 버리고 반대자들은 영적 전쟁 지지자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교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하여 최근 들어 영적 전쟁의 논쟁을 세계관의 문제로 제시해 보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가 트리니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폴 히버트(Paul Hiebert)이다. 그는 중간영역 세계관이라는 주장을 통하여서 서구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를 선교적 차원에서 잘 지적해 냈다.

히버트는 성경적 세계관은 서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경에는 드러난 차원과 드러나지 않은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경험적 세계가 하나의 차원이다. 이 세계를 설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제시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차원과는 다른, 인간의 경험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인식되어지지 않는지만 이 땅위에 존재하는 힘이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과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

<sup>31</sup> Neil Anderson, *Victory over the Darkness: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Ventura: Regal Books, 1990), Clinton Arnold, *Three Crucial Questions about Spiritual Warfa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7), Charles Kraft, *Defeating Dark Angels: Breaking Demonic Oppression in the Believers Life* (Ann Arbor: Vine Books, 1992), and Peter C. Wagner, *Engaging the Enemy: How to Fight and Defeat Territorial Spirits* (Ventura: Regal Books, 1991).

실재로는 같은 차원의 세계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월적인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 공존하지 않는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초월 세계와 경험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에 대한 무지가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이다.<sup>32</sup> 실제 히버트의 중간영역 세계관은 영적 전쟁 지지자들에게 논리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영적 전쟁 지지자들의 주장이 너무 세분화되어 지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 자신들이 체험한 내용들을 영적 원리처럼 강조하는 상황에 대해서 히버트는 세계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제를 하게 되었다. 그의 핵심적 주장은 현재 영적 전쟁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원리들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인도 유럽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세계관의 혼합주의 양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sup>33</sup> 현재 영적 전쟁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이들의 기본 이해는 대등한 능력을 가진 반대되는 세력과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목표는 상대를 패배시키고 주장(control)하게 되는 것이며 이 전쟁의 수단은 힘 혹은 능력이다. 침투하려는 악한 영과 이를 방어하려는 하나님의 영 사이에 거의 동일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히버트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대등한 세력간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보지 않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 또한 성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패배와 주장이 아니라 제지(restrain)와 화해라는 것이다. 전쟁의 수단은 사랑과 진리의 제시이며

<sup>32</sup> Paul Hie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죠이선교회, 1997), 259-62.

<sup>33</sup> Paul Hiebert, “Spiritual Warfare and Worldview”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4, 1999), 8-13.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방법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 지지자들의 가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승리의 검’(劍)이고 성경적 가치관은 십자가라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지적하며 히버트는 현재 주장되는 영적 전쟁 원리들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원리들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필자는 히버트의 견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동의를 표한다. 실제 영적 전쟁 지지자들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성경과 체험 사이를 연결시켜 주어야 할 신학적 견해도 약하며 일부는 오히려 신학적 견해에 위배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체험적인 것을 강조하며 서구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물들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결과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실제 이들이 주장하는 세계관도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히버트의 지적은 상당히 가치있고 적절한 것이다. 다만 히버트의 세계관을 통한 비평도 영적 전쟁 지지자들의 사역에서 얻는 체험적 원리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크래프트는 해석학의 영역에서 체험의 위치를 변증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34</sup>

## 맺는 말

이과수 대회는 1990년대에 복음주의 선교학의 관심이 전략적 실천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에 신학적 관심에 초점을 맞춘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로잔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중단된 시기에 신학적 관심사의 주제들을 찾아보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복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서 사무엘 에스코바르와 같은 성향의 학자를 주 발제자로 세운 것도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이지만 결국 복

<sup>34</sup> Edward Rommen, 『영적 능력과 선교』(서울: 목양, 1997), 166-68.

음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만한 영향력은 아직 부재로 보여졌다. 크리스 라이트의 다원주의 발제와 폴 히버트의 영적 전쟁과 세계관 발제는 커다란 흐름은 아니지만 복음주의 선교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방향 제시가 되어졌다. 또한 지금까지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에큐메니칼 그룹의 선교신학 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발전하였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문화적 차원의 주제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실망스러운 면으로 지적하고 싶다. 범세계적 선교학(global missiology)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하여 빈약한 발표로 그쳤다. 아직 범세계적 선교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가졌다. 지역적 편협성과 같은 문제도 복음주의가 넘어야 할 과제로 보여졌다.

이 대회는 이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복음주의의 특성을 잘 보여준 대회로 평가된다. 사랑과 용납,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감격, 선교적 사명에 대한 동일한 헌신 등이 대회 전체를 통하여 잘 드러났다. 이러한 특징이 복음주의의 가장 커다란 자산임을 무언중 보여준 대회였다.

## 참고문헌

- 이현모. “쌀바도르 회의에 대한 신학적 반성.” 『복음과 신학』. Vol. 24. (1999 가을호): 91-111.
- \_\_\_\_\_. “선교문화인류학의 현 동향과 패러다임 분석.”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발표 논문, 2000년 2월 15일.
- Hiebert, Paul.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조이 선교회, 1997.
- Rommen, Edward. 『영적능력과 선교』. 서울: 목양, 1997.
- Stott, John. 『현대기독교선교』. 서울: 성광 문화사, 1981.
- Anderson, Neil. *Victory over the Darkness: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Ventura: Regal Books, 1990.
- Arnold, Clinton. *Three Crucial Questions about Spiritual Warfa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7.
-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s*. Maryknoll: Orbis Books, 1991.
- Coleman, Robert E. “Lausanne II and Missions Today and Tomorrow A Forum.” *Trinity Forum* 15:2 (Winter 1990).
- Costas, Orlando. *Liberating News*. Grand Rapids: Eerdmans, 1989.
- \_\_\_\_\_. “A Wholistic Concept of Church Growth.” in *Exploring Church Growth*. ed. by Wilbert Shenk. Grand Rapids: Eerdmans, 1983: 95-107.
- Eastman, Michael. “Some Impressions of Lausanne II.” *Urban Mission* 7:3 (January 1990).

- Escobar, Samuel. "Evangelical Missiology: Peering into the Future from a Critical Historical Moment."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2, 1999.
- \_\_\_\_\_. "Global Scenario at the Conclusion of a Century."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1, 1999.
- Hesselgrave, David J. "Holes in 'Holistic Mission.'" *Trinity Forum* 15:3 (Spring 1990): 1-5.
- Hiebert, Paul. "Spiritual Warfare and Worldview."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4, 1999.
-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Bulletin No. 5. (Oct. 15, 1999).
- Kraft, Charles. *Defeating Dark Angels: Breaking Demonic Oppression in the Believers Life*. Ann Arbor: Vine Books, 1992.
- Lee, David Tae woong. "Towards an Evaluation of Evangelical Missiology."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to the WEF, January 31, 2000.
- Nazir Ali, Michael.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A World View of Christian Mission*. London: Collins, 1991.
- Sinclair, Maurice. *Ripening Harvest, Gathering Storm*. London: MARC, 1988.
- Tidball, Derek.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the New Testament*. Exeter: Paternoster, 1983.
- Wagner, Peter C. *Engaging the Enemy: How to Fight and Defeat Territorial Spirits*. Ventura: Regal Books, 1991.
- Walls, Andrew.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Orbis Books, 1996.

Wright, Chris. "Christ and the Mosaic of Pluralisms Challenges to Evangelical Missiology in the 21st Century."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Iguassu Missiological Consultation, Oct. 11, 1999.

\_\_\_\_\_. *The Uniqueness of Jesus*. Crowborough, England: Monarch Publications, 1997.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72.